

우리나라 古式 通型樣式으로 된 솔이므로 오랜 세월 靑銅製小鐘과 함께 地下에 埋藏되어 있던 關係로 몹시 酸化되어 있어 솔의 表面에 어떤 特徵을 發見하기 어려운 程度이다. 솔이 가지는 各各의 形態가 相異하며 그中 一個는 下部側面에 三個의 굽이 붙어 있으며 上部보다 下部가 넓어져 있고 솔의 底面은 平面으로 되어 있다. 다른 一個는 보통의 通式을 가진 솔이며 솔下部는 在來式솔보다 몹시 길고 있으며 特徵은 發見하기 어렵고 다른 一個와 같이 발이 달려있지 않다.

솔전은 二個 모두 全體的으로 통글게 돌려 있으며 同時에 發見된 一個의 솔부정도 特색이 뚜렷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在來式 솔과 달리 손잡이가 乳頭같이突出되어 있는 것이 보이며 二個의 솔과 뚜렷은 全部가 別個의 것이다.

實測值(cm) 솔(其一) 全高二〇 口徑二五 底徑二七 腹徑三七 厚〇·五
 솔부정 直徑二六·五 全高八·五 厚〇·五 솔꼭지 高二·五
 솔(其二) 口徑三五 全高三五 厚〇·五

資 料

全南 寶城邑 出土의 塔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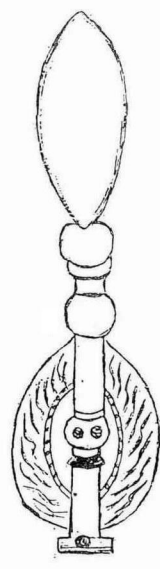
黃 壽 永

昨年 十二月 二十日頃 寶城邑 龍門里 山五八의 傳 寺址에서 崔洪元氏 (龍門里六五九 居住)에 의하여 靑銅製 佛敎遺品이 一括發見되었다는 바 今年 一月上旬 그들을 調査하였으므로 다음에 品目을 적어 두겠다.

(1) 靑銅如來坐像 一軀……등근 仰伏蓮花座위에 結跏趺座한 小像。로서 螺髮 通肩이며 右手를 들어 反掌, 左手는 무릎위에 얹고 있다. 衣紋은 垂下되어 裳懸座를 이루었는데 全高 十一·八 cm 身高 七·八 cm 로서 像名은 阿彌陀佛로 推定된다。(背面中央에 長方孔이 있다.)

(2) 靑銅菩薩立像 一軀…… 오랜 土中으로 全身에 靑녹이 덮였으며 臺座는 缺失, 唐草文寶冠과 連珠文頸飾을 갖고 裳帶와 全身에는 瓔珞이 장식되었고 天衣는 身部兩側을 따라 垂下되었다.

兩手는 缺失되었고 背面扁平하며 金箔의 一部에 남



(4) 實物大



(3) 實物大

(3) 小如來坐像(二軀)一個……唐草紋위에 跏趺座한 小像으로서 背光에 장식된 佛片으로 보인다. 高 九 cm (圖面)

(4) 靑銅相輪 一個……金屬工藝塔에 附屬되었던 水煙部 以上の 相輪頂部로 推定된다. 圓筒을 이룬 刹柱에는 아래로부터 連珠紋과 火焰文으로 장식된 四出의 寶珠形水煙(이 部分의 刹柱中央에는 작은 圓鼓形이 있어 四孔이 뚫려 있다)이 있고 그 위에 등근 龍車와 寶珠가 있으며 다시 尖部는 큰직한 鉞形을 이루고 있다. 이 鉞形은 四面인데 兩面은 넓고 他面은 좁아졌다. 全面에 鍍金이 잘 남아 있으며 下端에는 작은 圓輪을 이루어 二孔이 뚫려 있어 그 以下部分과 連結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全高 十五 cm 로서 相輪의 一資料가 될만 하다. (圖面)

以上的의 塔像은 (1)을 除外하고는 모두 完品이 아니나 出土場所가 確實하게 앞으로의 調査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相輪部의 收拾은 그 塔身의 存在를 짐작케 함이 있다. 이들 諸品은 모두 高麗의 作으로 推定된다.